

영광 주민들 ‘사용후 핵연료’ 여론수렴 거부

“추가 핵시설 건설·한빛원전 수명 연장 우려” 반발
원전 지역 중 유일하게 불참…공론화위도 사퇴키로

영광지역 주민들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여론수렴 절차를 전면 거부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여론수렴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지역에 추가 핵시설 건설을 불러올 수 있고,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한빛원전의 수명 연장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작용한 탓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광은 원전 소재지역 5곳 가운데 유일하게 여론수렴 전문가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주민 대표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주민도 지역 여론을 감안해 지난 10월31일부터 정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데 이어 최근에는 위원회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 주도의 ‘짜맞추기식’ 여론수렴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

고리·한울·월성원전이 소재한 4개 지역(기장, 울주, 울진, 경주)은 최근 각각 여론수렴 전문가를 선정하고 지역민 여론수렴 절차(응역)에 들어간 것과는 대조적이다.

영광지역 주민들이 공론화위원회가 추진하는 여론수렴 자체를 거부한다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 등)에 관한 방침을 사실상 정해놓고서 ‘요식행위’로 원전 소재지역 주민 등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준위 핵폐기물로 분류된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여론이 정부의 뜻대로 수렴될

경우, 영광에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중간)저장을 위한 추가 핵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한빛 1~6호기의 수명 연장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없을 경우 핵 발전소 증설 계획이 없는 한빛원전은 오는 2024년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된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최근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 자체에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원전 소재지역 지역주민 등 국민 여론수렴의 전체 조건인 ▲원전 등 시설 규모의 확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재처리량을 포함한 처분 방식의 결정 등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단체 등 관련단체 위주로 한 여론수렴은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황대권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

한 공동행동 대표는 “정부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사용후핵연료를 확정하지도 않고서 국민에게 여론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영광 지역만큼은 종교, 사회, 농민단체 등 주민 전체가 똘똘 뭉쳐 정부의 여론수렴 절차에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같은 단체 장영진 집행위원장은 “일단 어쩔식으로도 영광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각본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짜맞추기식’ 여론이 수렴되면 영광에 추가 핵시설 건설이 불을 보듯 뻔하고, 수명만료가 코앞인 한빛 1호기 또한 연장 가동을 꺾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용후 핵연료는 핵 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원료 다발로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탓에 1초만 인체에 노출돼도 100% 사망하게 된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폐기물로 불리는 사용후 핵연료는 최소 10만 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담배 구하기 전쟁

새해 인상 앞두고 인기 담배 구입 어려워
소매상들 사재기 의혹 속 KT&G는 방치

이모(37)씨는 25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A편의점에서 KT&G의 보행시가 한 갑을 사려고 했지만 “다 떨어졌다”고 해 구입하지 못했다. 이씨는 조금 떨어진 다른 편의점으로 가 같은 담배를 사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구입할 수 없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인근 편의점과 마트 등 5곳을 둘러봤지만 해당 담배를 살 수 없었다.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흡연자들의 담배 구하기가 치열하다. KT&G가 담배값 인상 정책을 확정된 뒤 고급 물량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도 했지만 흡연자들은 판매점에서 평소 피는 담배를 구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담배 소매상들이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흡연자들의 담배를 핑계 삼아 소비자들에 선호하는 특정 담배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다 팔아서

없다”는 담배 판매점들이 사재기를 방치한다는 핑계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일부 담배를 창고에 쌓아놓고 아예 내놓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담배판매점의 담배매질’, ‘판매점 돌며 건강도 챙기고 담배 구입으로 재테크까지’, ‘그 많던 담배는 판매점 창고에?’ 식의 말이 떠도는 가운데, 담배 판매를 놓고 손님과 종업원간 말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KT&G가 담배 사재기 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배값 디자인을 바꾸는 등 사재기를 막는 방침을 내놓기는 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사재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내년 1월 1일을 기해 예세 클래식·예세 수·더원 블루·레종 블루 등 담배가격은 2500원→4500원으로 인상된다. 2500원인 다비도프 클래식과 다비도프 블루는 4700원으로 오른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담배 인상가격 보니

예세 클래식·더원 블루 2500원→4500원
다비도프 클래식·블루 2500원→4700원

미완공 건물 사용승인 대가 돈받은 공무원 실형 선고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사용 승인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381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청 건축허가와 탐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4월 29일 광주시 광산구 완동 에이엠 빌리지의 사용 승인을 대가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건축사에게 138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수수 등

로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가 하면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2년~4년이지만 재판부는 공무원 근무 경력, 가족이 투병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38) 건축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용승인이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허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를 작성한 건축사 C(44)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 건축사는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외제차가 횡단보도 가로막자…횡감에 행패 부린 농부



○“고급의제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가로막자 횡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집어던진 뒤 운전자에게 손찌검을 한 40대 농부가 경찰서행.

○2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양모(45)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A음식점 앞길에서 이모

(38)씨의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뒷문에 아이스크림을 던진 뒤 횡의차 내린 이씨의 먹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

○양씨는 경찰에서 “배추값 폭락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 술 한 잔 마시고 귀가 중이었는데, 이씨가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가로막자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원전 검문검색 강화

자칭 ‘원전반대그룹’이 원전가동 중단을 요구한 시한을 넘긴 25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정문 앞에서 보안요원들이 출입차량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커의 요구 시한이 지났지만 국내 원전은 이상징후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빛원전 등 4개 원전 27일까지 비상대기체제 가동

자료 유출 그룹 크리스마스 사이버 공격·징후 없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우려됐던 25일 공격이나 징후는 없지만, 비상대기체제를 27일까지 가동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24일 오후 6시부터 본사 종합상황실과 고리·월성·한빛·한울 등 4개 원

전본부에 3개 조로 비상 상황반을 꾸리고 24시간 비상대기체제에 돌입했다.

산업부도 정부세종청사에 중앙통제반을 두고 4개 원전본부에 직원을 파견해 한수원과 함께 비상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원전 자료를 유출한 자칭 ‘원전반대그룹’은 크리스마스부터 석 달 동안 고리 1, 3호기와 월성 2호기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유출 자료 10여 만장을 추가로 공개하고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원전반대그룹은 지난 15일, 18일, 19일, 21일, 23일 1주일 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총 85건의 원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으며, 앞서 지난 9일에는 한수원 PC에 악성코드를 담은 이메일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서 19, 21, 23일 이를 간격으로 자료를 공개한 데다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오늘 또다시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현재 내부 PC로 들어오는 외부 메일을 전면 차단한 상태다. /연합뉴스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모집 인원	▶ 30명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입학상담문의 **GOChina** 중국 전문 인력양성

www.gotochina.co.kr 저가전환주세요!! 사자학원 만드세요! 233-9582 (중)구오팔리

옥상·외벽·내벽·주택

전 | 문 | 방 | 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위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